

하원, 한미 동맹 강화 결의안 통과

미 하원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 두 건이 통과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전체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룬 결의안과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 총 2건을 통과시켰다.



▲ 연방하원이 한미 동맹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연방의회 의사당 모습. 사진=shutterstock

스위지 의원(민주)이 대표발의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 표명' 결의안은 한미 동맹을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통해 강화되고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해 구축된 포괄적인 동맹 파트너십'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한국계 미국인 사회 구성원이 미국 군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평화 향상에 한미 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베라 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한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 인식 및 호혜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한미 동맹 전환' 결의안은 6·25 전쟁을 '피로 맺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 '린치핀(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 가치 공유를 통한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이 미 전역 6·25 참전 용사들을 상대로 마스크 50만 개를 기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이런 인식을 토대로 ●한국 전쟁 및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한 양국 희생자 예우 ●평화·안정 보장을 위한 동맹 역할 재확인 ●코로나19 인명 구조 협력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다.

유학생 감소로 18억 달러 손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과 이에 따른 유학생 감소가 미 경제에 상당한 손실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학생 숫자가 더 줄어든 것으로 보여 손실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CNBC는 전날 전미국제교육협회(NAFSA)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유학생 등록 감소로 미 경제에 18억달러 손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올해 손실 규모가 더 급격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이 코로나19 최대 확산국이라는 점과 반이민 정책이 겹쳐 유학생들은 이미 다른 나라들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급격한 유학생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공개된 미 국무부 산하 교육문화청과국제교육협회(IEE)의 '오픈도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 학년 미국 내 유학생 수는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IEE에 따르면 2020학년 시작한 올 가을학기 유학생 등록 규모는 온라인 학생을 포함해 16% 급감했다.

현재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100만 명이 넘고, 2019~2020년 이들이 미 경제에 기여한 규모는 금액으로 387억 달러 수준에 이른다. 이들의 학비, 생활비 등 직접적인 지출과 이들의 지출에 기대어 사는 학교, 지역사회 등 경제적 유발효과까지 더한 규모다.

그러나 이 규모는 전년에 비해 4% 넘게 감소한 수준이다. NAFSA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여년 만에 첫 감소세다.

중국 유학생 감소가 직격탄이었다. 미국의 반이민 정책으로 주춤하던 중국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팬데믹 이전 중국 유학생 수는 약 37만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미국이 중국 유학생 규제에 나서고 있는 이른바 STEM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분야의 중국 유학생 비자를 규제하는 등 까다로운 정책을 취하고 있다.

뉴욕 유학컨설팅 업체 라카니 코칭 하피즈 라카니 사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유학생 감소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최근 공개된 데이터는 초기 규모로 팬데믹이 본격화한 이후의 통계가 빠져 있어 1년 뒤 드러나게 될 유학생 감소 규모는 '재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11월 23일 ~ 11월 29일, 2020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 易學 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p>쥐</p>	<p>중전에 떠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운세가 왕성합니다. 마치 가을철에 풍년을 맞은 모습입니다. 재물이 풍족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니, 세상만사가 태평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언제까지나 중천에만 머물지 않듯이, 현재의 행운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오래 보전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말</p>	<p>지금까지 꾸준히 키워 온 실력을 바탕으로, 드디어 세상에 나아가 큰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착수하여야 합니다.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기와 노력만 있으면 앞길은 탄탄대로일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순서에 따라 기초를 다져 나가면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소</p>	<p>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며, 허망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권태로움을 수반하므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고 욕구불만이 생기기도 쉽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확고한 주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끈고 바르게 가져야 이롭습니다. 육진을 공경하고 넓은 덕을 쌓아야 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양</p>	<p>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이치에 따라서 행동하면 길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일을 벌이면 소문만 크게 나고 실속은 없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적인 충실을 기하고 안정을 취하면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범</p>	<p>덕망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하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위에 맞추어 좋은 사람들과의 교분을 두텁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때이므로, 좋은 일은 남보다 먼저 추진해야 하고 협력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노력하면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원숭이</p>	<p>대지 위에 태양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명성과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용맹한 장수처럼 기세가 강건하지만, 한편으로 기고만장해지지 쉬우니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토끼</p>	<p>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돌아오니 모든 것이 원만한 격입니다. 운수가 대길하니 뜻하는 일을 순조롭게 이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결이 잘되므로, 새로운 계획에 착수하여도 순풍에 돛단 듯 어려움 없이 발전합니다. 겉으로는 유순하고 안으로는 견실하니 불만이 없는 모습입니다. 포부를 크게 갖고 성심으로 노력하면 더욱 길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닭</p>	<p>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며, 허망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나친 확장이나 새로운 계획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견실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부적인 실속이 있는 때이므로 꾸준히 노력하면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섭을 벌이면 좋습니다. 기존의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새로운 거래나 대규모 사업은 거래나 대규모 사업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용</p>	<p>만약 자신의 역량을 과신하여 나태한 생활을 해 나간다면 결국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일에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바른 길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속에 밝음을 간직하고 겉으로는 유순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덕(德)은 배풀고 다른 사람의 시기나 구설, 허물은 눈감아 주어야겠습니다. 나쁜 유혹이나 사기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끈고 바르게 가져야 이롭습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개</p>	<p>천성이 천리 밖까지 울리지만 소리만 있고 형체는 없듯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남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일을 벌이면 실패가 따를 것입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삼가고 좋은 협력자를 구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누어 주면 나중에 복록(福祿)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돼지</p>	<p>석양의 노을이 세상을 붉게 비추면 냉철한 이성보다는 감성과 상상에 잠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겉모습에 치중하게 되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하면서도 화려한 생활을 바라기 쉽습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고 실속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목적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p> <p>금전○애정○건강△</p>	 <p>돼지</p>	<p>그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있거나 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견실하고 명쾌하게 대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승진하게 되는 운세입니다. 뒷사람이 이끌어 주고 아랫사람이 도와주니 사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p> <p>금전○애정○건강△</p>